

과일 나무 향기에 묻혀

안변군 모퉁리 소재지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산기슭을 따라 줄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들도 그리하지만 집집마다 심은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소재지마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다.

용하여 수심그루의 사과나무를 가꾸고있는데 한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최고 150kg의 사과를 딸 때도 있다고 한다. 과일나무동네의 자랑은 안변군 모퉁리소재지에만 있지 않다.

《집집마다 과일나무들이 우거져 봄이면 온 마을이 꽃향기속에 묻히고 가을이면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군 한다.》

이곳 농장일군의 말에 의하면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는데 농장에서 갖가지 과일나무는 물론 끝나무재배에서 성공하여 해마다 꺾고 수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아지마다 열매가 주렁지는 복숭아나무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원래 금야군은 감이 너무 달아 유명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6월부터 9월까지 복숭아를 딸지 않고 먹는 《복숭아군》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 군안의 농촌세대에서는 보통 15그루이상의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다. 박병일 가정의 집터에는 7년생 복숭아나무들과 4년생 복숭아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펼치고있는데 20여그루나 된다.

이밖에 살구, 포도, 사과, 감, 앵두나무들도 있다. 이 가정에서는 한해에 보통 500kg이상의 복숭아를 비롯하여 많은 과일을 따들인다고 한다.

이 가정만이 아닌 어느 농촌세대에서나 복숭아나무를 심어 덕을 보고 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가정살림을 윤택하게 하고 유치원어린이들에게도 보내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산마다, 집집마다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 과일나무속에 묻힌 마을의 풍치는 볼수록 장관이다.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과일나무속에 묻힌 마을의 풍치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것은 자기 사는 고향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이곳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살림집 주변에 많은 과일 나무를 심고 가꾼다.

전망이 좋은 조선의 여자축구팀들

최근 아시아축구연맹은 공화국의 여자축구팀들이 국제경기장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되어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조선남자축구대표팀은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이름을 날린 첫 아시아팀이다. 박두익을 비롯한 1996년의 조선남자축구대표팀이 세계를 놀래켰다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조선의 여자축구팀들이 세계를 정복하였다.

2개의 나이급에서 월드컵과 아시아선수권을 각각 4차례 정취한것이 바로 그 실증으로 된다. 조선팀이 2006년 제3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현재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 우승한것은 파문을 일으킬만한 사변이었으며 2008년 제1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현재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미국팀을 타승한것은 경이적인 성과였다.

구련맹 17살미만과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컵을 다같이 보유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해에 이러한 성과를 거둔 나라는 아직까지 없다. 조선팀은 2016년 10월 요르단에서 진행된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경기과정에 브라질팀과 나이제리아팀을 이기고 1위를 한 조선팀은 준결승경기에서 가나팀을, 준결승경기에서는 베네수엘라팀을 이겼다. 결승경기에서 조선팀은 일본팀을 5:4로 타승하였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진행된 2016년 국제축구연맹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도 조선팀은 강팀으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스웨디에르팀과의 경기에서 2:0, 브라질팀과의 경기에서 4:2, 주취국팀인 파푸아뉴기니아팀과의 경기에서는 7: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겨 조에서 1위를 하였다.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공화국선수들

니아팀과의 경기에서는 7: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겨 조에서 1위를 하였다. 승자전단계의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세계강팀들과의 대결이었다. 준결승경기에서 조선팀은 에스빠냐팀을 3:2로 이겼으며 미국팀과의 준결승경기에서도 결정적인 득점을 하여 타승하였다.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이긴 프랑스팀과 대전하게 되었다. 경기시간 17분경에 먼저 실점당하였지만 조선팀은 인차 경기력을 돌렸고 3골을 넣어 경기에서 이겨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서는 새로 꾸려진 조선의 여자축구팀들이 우승하였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현재 조선의 여자축구팀에는 그대의 선수들이 주력을 이루고있다고 하면서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와 그 다음해에 열리는 여자월드컵경기대회가 그들에게 훌륭한 기회로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실리가 큰 잣나무품종립조성기술

잣나무는 기름나무들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나무의 하나이며 그 자원이 많다. 잣나무림을 많이 조성하는 것은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잣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이다. 공화국의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경제적실리가 큰 새로운 잣나무품종립조성 기술을 개발하였다.

작을 8년이상 앞당길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회령시, 름산군, 수안군, 운산군, 구장군, 세포군, 함주군 등지의 산들에 이 기술을 도입한 결과 사람들이 철저히 보장되어 우량품종의 잣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할수 있다는것이 실적으로 입증되었다.

1933년 어느날 레코드회사의 전속작곡가로 있던 리면상의 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리면상의 《꽃을 잡고》를 민요풍의 곡조를 붙여 레코드취입에 넘기면서 그 명칭을 《민요》라고 달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작곡가들속에서 큰쟁을 일으킨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의미하며 생각을 굴리던 리면상이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민요를 조상전래의 옛 가락에만 귀착시킨다면 민요라는것은 100년전에나 100년후에도 그 가락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말인가. 민요도 시대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네.》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최산수로 불리운 최북

18세기 조선의 이름있는 화가들중에는 최북도 있다. 최북은 인물과 산수, 꽃과 짐승을 그리는데 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산수화를 잘 그려 《최산수》라고 불리우기까지 하였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화폭에 담는것을 즐겨하였으며 통치배들의 비위에 맞는 그림은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북의 그림을 그리기를 강요하자 그는 자기의 한쪽눈을 찢어 버리게 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한여름》, 《금강산》, 《표훈사》, 《어름뽕》, 《매와 토끼》 등을 들수 있다.



산수와 《매와 토끼》(최북 작)

허성철

식물도 《적대적관계》가 있는가

사람과 동물에게만 벗과 원수가 있는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벗과 원수》가 있다. 물론 식물의 《벗과 원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장상태에서 표현된다.

해충을 쫓을수 있다. 강냉이와 완두콩 사이사이 심으면 같이 잘 자랄수 있어 리익을 본다. 장미와 나리류는 《다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데 그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꽃송이가 많이 달리고 잎이 무성할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민요라고 할수 있나. 이 노래야 작곡가 리면상의 창작품이 아닌가.》 그러자 김교성이 품채 좋은 몸통을 뒤로 젖히며 주를 달았다. 《음, 하긴 작곡가의 창작품을 전통적인 민요가라하면 같은 그릇에 담을수 있겠지.》

《신민요》라는 명칭으로 부르고있었다. 민요에 대한 일정한 식견을 가진것이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 《이것을 어떻게 민요라고 할수 있나. 이 노래야 작곡가 리면상의 창작품이 아닌가.》

《그렇지! 구전민요와는 다른 새로운 민요라는 뜻에서 새 《신》자를 덧붙여 《신민요》라고 하면 어떻겠나?》 그리하여 《포리들》 레코드회사에서 제작한 소리판에 처음으로 《신민요》라는 새로운 용어가 불기 시작하였고 그후 새로 창작한 민요풍의 노래에 《신민요》라는 명칭을 달기 시작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리순신과 로인 (4)

글 박춘명, 그림 채대성

《어떻게 한단 말이고?》 《밀물때를 맞추어서 왜놈들의 배를 끌어들이면 썰물때는 밀려서 갈팡질팡하게 되지요.》 《배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겠는고?》 《울돌목의 물살이 너무 빠르기에 그곳에서는 배를 멈추어세우지 못할줄로 아뢰옵니다.》 《그래서?》 《소인의 생각에는 울돌목 물속에 쇠사슬을 늘어놓으면 어떻하오이다.》 《쇠사슬을?》 《쇠놈배들이 흘러내려다가 쇠사슬에 걸리면 웬간한 배는 뒤집히고말줄로 아뢰옵니다.》 《고담네, 고담네. 그대들은 이제부터 나의 옆에서 이통제사를 도우라.》 리순신은 희색이 만만하여 로인의 손목을 짊 쥐었다. 이튿날 리순신은 늙은이에게 명하여 근처에 있는 고기배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그리고는 그 고기배들을 마치 싸움배처럼 위장시켜

수군의 배뒤에 배치하여 놓았고 칠봉이에게는 인민들과 함께 해협의 연안을 지키다가 특이치 울라오는 왜놈들을 몰살시킬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막로들에게 울돌목에 쇠사슬을 늘어놓도록 하였다. 전투는 리순신 자신이 직접 울돌목에 나가서 지휘하기로 했다. 리순신은 십여척의 배들을 고기배앞으로 나가있게 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조선수군의 위력이 굉장해 보였다. 드디어 도도, 구루시마 등이 지휘하는 수백수십여척의 전선이 최대만조기의 순류를 따라 우리 수군이 배치되어있는 울돌목으로 침공해왔다. 《푸른기를 울려라!》 리순신은 해협이 미여지게 물러오는 왜놈들의 배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수군의 모든 전투지휘는 호포와 기발로 하게 되어있

었다. 그의 출동명령에 따라 우리의 함선 12척이 일자형으로 진을 쳤다. 적들은 우리의 전선수가 적은것을 보고 포위진을 치면서 공격하였다. 우리 수군의 일부 편장들은 적선의 수호가 너무도 많은데 놀래여 얼마간 뒤로 물러서려는 기색이 보였다. 만약 12척의 배들중에서 한척이라도 물러서면 적들에게 완전포위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통제사어른, 썰물때가 가까와오는데 물러서면 안될 줄로 아뢰옵니다.》 로인이 안타까운듯 옆에서 말했다. 《우리의 배부터 앞장서라. 왜놈을 맞받아나가자.》 리순신은 고목로 나서면서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 진두에 선 지휘선의 움직임은 큰 영향을 주었다. 일시 뒤로 물러섰던 거제현령 안위의 배와 참모 김응합의 배들도 돌격전에 가담

하였다. 각종 총포와 포들이 적선을 향해 입을 열었다. 불덩어리들이 왜놈의 머리와 배를 조수에 밀려서 서로 부딪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통제사어른, 배를 놓치지 마시오이다.》 로인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왜놈들을 쳐라. 총, 포를 쏘라.》 지휘선에서 다시 사격이



의 사기는 갑자기 떨어졌다. 《통제사어른, 썰물이 시작되어오다. 우리의 배들이 밀려내려가지 않게 하시오이다.》 로인이 바다물을 보며 말했다. 시작되자 우리의 배들에서는 일제히 갈팡질팡하는 왜놈들의 머리위에 불벼락을 퍼붓기 시작했다. 왜놈들의 배는 점점 밀려 내려 가장 좁은 여울목에 이르렀다.

파연 썰물이 시작되고있었다. 조수의 흐름이 점점 눈에 띄우게 알려졌다. 왜놈의 배들이 조수에 밀려서 서로 부딪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통제사어른, 배를 놓치지 마시오이다.》 로인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왜놈들을 쳐라. 총, 포를 쏘라.》 지휘선에서 다시 사격이

살구명을 찾아보려는 왜놈의 배들이 기슭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앞서 기슭에 늘어놓은 첩사로 해서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치다가는 통제로 뒤집혀지곤 하였다. 살아남은 놈들이 헤엄을 쳐 갈신히 기슭에 오르자 철봉이를 선두로 한 군사들과 인민들이 의하여 모조리 녹아났다. 울돌목싸움에서 왜놈들의 배 80여척이 녹아나고 4000여명의 적들이 격멸되었다. 우리의 수군은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바다기슭이 가까와오자 수군들은 소리높이 만세를 부리며 기뻐했다. 그러나 리순신은 숙연히 무릎을 꿇고앉아 로인을 붙안고있었다. 울돌바다 마지막싸움이 한창일 때 왜놈들의 눈먼 총알에 로인이 전사하였던 것이다.

평범한 이 늙은 어부가 자기의 작전구상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늙은이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어주어야겠소.》 리순신은 옆에 있는 편장에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감기약입니다.》 (끝)

여름철로증과 칼리움보충

일반적으로 봄에는 피곤하고 가을에는 나른하며 여름에는 졸음이 온다. 여름철에 많은 땀이 배출되는것으로 하여 인체는 다량의 나트륨과 상당한 량의 칼리움을 잃으며 하여 인체의 피로와 무력증이 나타난다. 칼리움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원소로서 근육과 신경의 민감성을 유지, 강화하고 심근의 정상적인 운동기능과 콩팥우신의 정상기능유지에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일단 칼리움이 결핍되면 신체의 정상적인 운동기능이 영향을 받을뿐아니라 신체의 여러 생명활동에서도 기능문란현상이 초래되고 고온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도 떨어진다.

어저 사람들은 쉽게 더위를 먹는다. 따라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과 칼리움섭취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는 포도, 수박, 참외, 복숭아, 가지, 시금치, 유채, 미나리, 도마도, 오이, 감, 다시마, 감자, 콩제품, 버섯 등 칼리움이 풍부한 음식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밖에도 작물가운에서 메밀과 고구마에, 고기중에서는 돼지피살과 물고기, 새우에 칼리움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다. 특히 차일속에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으므로 더운 여름철에 일상적으로 마시면 좋다. 본사기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기가 왔는가요?》 《아니요. 난 아픈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기약을 그렇게 한거예요...》 《아, 오물보이 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든요. 아까워서...》

《감기가 왔는가요?》 《아니요. 난 아픈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기약을 그렇게 한거예요...》 《아, 오물보이 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든요. 아까워서...》